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귀인 양식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이 종 민¹⁾

수원대학교 아동상담실

최 영 희²⁾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성취동기가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및 귀인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른 성취동기 차이도 살펴보고자 연구대상을 대도시인 서울시, 중소도시인 경기도 의정부시, 그리고 소도시인 충청남도 서산시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아동들 420명을 조사하였다. 가족기능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응통성으로, 아동의 귀인양식은 성공상황과 실패상황 각각에 대해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의 네 가지 귀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의 성취동기는 중상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소도시의 아동보다, 여아가 남아보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의한 성취동기 수준의 차이는 가족기능 및 귀인양식과 함께 설명할 때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기능이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귀인양식에서는 성공상황에서 능력과 노력귀인이, 실패상황에서 능력귀인이 성취동기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가족응집성과 응통성이 높은 것이, 성공을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 하는 것이 아동의 높은 성취동기를 설명하였고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 하는 것은 아동의 낮은 성취동기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라는 환경이 아동의 성취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능력귀인이 성공 또는 실패상황에 따라 성취동기에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성취동기, 가족기능, 귀인양식

* 본 논문은 2006년도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수원대학교 아동상담실 연구원

2) 교신저자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E-mail : heechoi@suwon.ac.kr)

I. 서 론

현대사회의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대한 발전을 있게 한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운명과 치열하게 경쟁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의욕적인 모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며, 개인마다 고유한 생김새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의욕 수준도 다양한데, 인지주의자들은 이를 개인의 동기 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보인다(Murray, 1938, 장휘숙, 2001 재인용). 동기는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근원적인 힘으로 특히 인간이 가치 있는 일을 완성하고 어떤 목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적 상태이다(장휘숙, 2001).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는데, Murray(1938)는 이를 성취동기라고 하였다. Murray는 성취동기를 장애를 극복하려 하며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어려운 일을 가능한 조속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욕망 또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다.

성취동기는 아동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다(전경숙, 1986). 아동의 학업성취가 지적 수준과 상관이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이는 아동이 과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높은 성취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자발적 의지인 성취동기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송길연 등, 2001). 아동은 성취동기 수준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쉽게 과업수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아동의 성취지향적 행동은 2세경에 처음으로 나타난다(Stipek, Recchia, McClintic, 1992). 2세 유아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가족 등 타인의 칭찬이나 기대를 예측할 수 있으며 3세가 되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행을 평가하고 성공하면 기쁨이나 자랑스러움을, 실패하면 수치심을 경험한다. 아동의 인지능력과 사회적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과제의 어려운 정도와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 자신의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성취동기가 발달된다.

아동이 과제에 성공이나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다음에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높아질지가 달라진다. Weiner(1986)는 성취 욕구가 높은 개인과 성취 욕구가 낮은 개인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성패에 대한 원인 지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취동기가 높은 개인은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보다 성패에 관련된 행동에 보다 더 접근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성공을 내부요인(능력, 노력)에 귀인하려 한다. 반면에 성취동기가 낮은 개인은 성공을 외부요인(과제난이도, 운)에 귀인하려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귀인양식과 성취동기와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성공을 능력이나 노력과 같은 내부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고 운과 같은 외부요인으로 귀인 할수록 성취동기가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연주, 구광현, 1998; 김주영, 2005; 이미리, 1983). 안귀덕(1986) 역시 내부 귀인양식을 가진 아동이 외부 귀인양식을 가진 아동에 비해 욕구 충족을 억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내적으로 귀인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Atkinson(1964)은 성취동기를 성공을 지향하는 욕구와 실패를 피하려는 욕구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높은 성취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성공을 지향하는 욕구가 실패를 피하려는 욕구보다 높고, 낮은 성취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려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이다. 즉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적 동기로 인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성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나, 실패를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면 위험에 도전하기보다는 위험을 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성취동기가 성공지향과 실패회피 사이에서 각 개인이 한 선택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에서의 귀인을 분리해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능력이나 노력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과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하여 실패했다고 내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동일하게 성취동기를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 각각에서의 귀인양식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편 성취동기의 발달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그 개인 유기체의 요인과 동시에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가정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환경 요인이다. 성취동기와 가정환경 변인의 관계는 주로 아

동이 부모와 형성한 애착의 특성이나 양육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정하게 애착된 아동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이 더 강했다(Belsky, Garduque, & Hrncir, 1984). 안정 애착 아동들이 지적으로 더 유능하지는 않았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동의 성취동기가 부모의 양육방식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은 일찍부터 성취훈련을 시키고 자녀의 성공을 기대하며 보상하는 부모들은 높은 성취동기를 갖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송길연 등, 2001). 부모가 애정적, 자율적, 성취적, 합리적인 양육태도일 때 성취동기가 높았고, 모의 태도보다 부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취동기에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신혜경, 1989). 청소년의 경우에 남아에게는 성취지향적인 태도가, 여아에게는 애정적인 태도가 성취동기와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민숙정, 1990; 정인, 2000).

이와 같이 아동의 성취동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이나 양육태도가 주로 관심이었으나 부모와 아동간의 특정한 관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기능과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가족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의 정도인 가족 응집성과 상황에 맞는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이 변화하는 정도인 가족 융통성이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족의 형태(최윤실, 2005)와 이혼 여부(김보경, 2001)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가 다르다는 것은 부모-자녀 관계를 넘어서 가족의 기능 정

도가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 기능과 아동의 자아발달(이정렬, 1986), 정신건강(김주연, 1998), 자아존중감(서영미, 2004), 사회성(김정화, 2005) 발달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수행되어 왔으나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과 아동의 성취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도 아동에게 중요한 환경이 된다. 도시 청소년과 농촌 청소년은 심리, 행동 특성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어, 성취동기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곽금주·박영신·김의철, 1998).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른 차이를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로 나누어 지역에 따라 성취동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1. 아동의 성취동기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의 성취동기는 가족기능 및 귀인양식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
3. 아동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많은 선행연구들은 아동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의 보고를 사용해 왔는데, 이는 아동이 지각하는 실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박영애, 1995) 아동의 성취동기, 가족 기능, 귀인양식을 아동을 통해서 직접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변인인 귀인양식의 측정은 논리적 추론 능력이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 단계(11세 이후)인 아동 후기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연구(신혜경, 1989; Weiner, 1980)에 근거하여 초등 학교 5학년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성취동기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도시(서울시), 중소도시(경기도 의정부시), 그리고 소도시(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마다 조사를 허락한 1개 학교에서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질문지 방식에 의해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20명의 아동이 본 연구의 대상이었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대도시에서 40.0%, 중소도시에서 32.4%, 소도시에서 27.6%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남자는 51.2%였고 여자는 48.8%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교육수준은 높았는데, 아버지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이 28.6%, 대졸이 41.7%였으며 어머니의 경우 대학원 졸업 이상이 21.4%, 대졸이 39.3%였다.

2. 측정도구

가족기능 척도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의 하위 영역인 가족 응집성과 가족응통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Olson, Portner와 Lavee에 의해 1985년에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빈도(%)	변 인	구 분	빈도(%)
지역별	대도시	168(40.0)	성별	남자	215(51.2)
	중소도시	136(32.4)		여자	205(48.8)
	소도시	116(27.6)			
아버지 교육정도	고졸이하	106(25.2)	어머니 교육정도	고졸이하	145(34.5)
	대졸	175(41.7)		대졸	165(39.3)
	대학원이상	120(28.6)		대학원이상	90(21.4)
아버지 직업	무직	3(0.7)	어머니 직업	무직	234(55.7)
	단순노무·서비스	92(21.9)		단순노무·서비스	62(14.8)
	사무직·회사원	228(54.3)		사무직·사원	83(19.8)
	전문직·관리직	65(15.5)		전문직·관리직	22(5.2)

제작된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FACES III는 가족체계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ACE 척도 시리즈 중 세 번째 것으로 성인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인데, 한상분(1992)이 아동의 수준에 맞는 단어들로 수정한 것이다.

총 20문항으로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을 각각 10문항씩으로 측정하고 있다. 문항의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다.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의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가족 응집성의 Cronbach's α 가 .78, 가족 융통성의 Cronbach's α 가 .72로 신뢰할 만 하였다.

귀인양식 척도

귀인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Crandall 등(1965)이 개발한 귀인양식척도

(Intellectual Achievement Responsibility: IAR)를 초등학교 4, 5, 6학년 수준에 맞게 이미리(1983)가 수정한 도구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성공에 대한 귀인 10문항과 실패에 대한 귀인문항 10문항으로 총 20문항에 답하도록 되어있다. 자신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각 문항마다 네 가지 요인 즉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요인에 순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성공상황과 실패상황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성공상황 예는, 만일 내가 반장으로 선출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1. 나에게 반 친구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2. 내가 우리 반의 친구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 3. 반장후보에 나온 친구들이 별로 인기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 4. 운이 좋기 때문이다.

실패상황 예는, 만일 내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1. 머리가 좋지 않아서 노력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 () 2.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이다.
- () 3. 문제가 너무 예상 밖의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 () 4. 시험 운이 없기 때문이다.

각 문항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순으로 네 가지 귀인 요인에 대해 1, 2, 3, 4로 순위를 매기게 한다. 채점방법은 1순위로 평점한 요인의 점수는 4점, 2순위는 3점, 3순위는 2점, 4순위는 1점을 부여하여 성공과 실패 상황 각각에서 능력, 노력, 과제난이도, 운 귀인의 8가지 점수를 구한다. 각 하위변인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Cronbach's α 로 산출한 결과, 성공 상황은 .66에서 .80이고 실패 상황은 .54에서 .75였다.

성취동기 척도

아동의 성취동기는 객관적 지필검사방법으로 McClelland의 성취인의 행동특성, Herman (1970)의 성취동기검사(Prestatie Motivation Test)를 참고로 유창열(1986)이 제작하여 이병인(1991)이 재검사한 검사지이다. 총 문항이 21문항으로 구성되며 긍정적인 문항이 19문항이고 부정적인 문항이 2문항이다. 검사의 응답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으로 배점하여 채점했으며 부정 진술 문항의 경우는 역으로 환산채점 처리하였다. 성취동기 점수의 범위는 21점~10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 그리고 직업을 조사하였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9월 14일부터 25일에 걸쳐 조사 되었다. 대도시(서울), 중소도시(경기도 의정부), 소도시(충청남도 서산)의 초등학교들 중 조사를 허락한 학교의 5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응답요령을 설명하였고, 각 반 담임교사가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4~5일 후 회수하였다. 3개 학교의 14학급에 배부된 약 500부의 질문지 가운데 462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무응답과 불충분한 응답을 한 경우를 제외시키고 420부(85.0%)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귀인양식, 가족기능, 성취동기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test와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Duncan의 사후검증으로 알아보았다. 귀인양식, 가족기능, 성취동기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취동기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 차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아동의 거주지역, 성별, 그리고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아동의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동의 성취동기 차이

구분	N(명)	Mean(SD)	F/t
(지역)			
대도시	165	81.55(11.50) a	5.49*
중소도시	125	82.10(11.66) a	
소도시	125	77.56(11.54) b	
(성별)			
남자	207	78.85(12.07)	2.95*
여자	195	82.37(11.03)	
(부 교육정도)			
고졸이하	98	77.49(11.84) a	7.71**
대졸	170	81.27(10.76) b	
대학원이상	116	83.50(11.43) b	
(모 교육정도)			
고졸이하	135	79.45(11.90) a	5.64**
대졸	162	80.50(11.09) a	
대학원이상	86	84.53(10.62) b	

* $p < .05$ ** $p < .001$

a, b: 사후검증(Duncan)

표 2에 의하면 아동의 성취동기의 범위는 21~105점인데 본 연구대상의 평균은 80.6으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들로 분석한 결과, 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았으며, 남아보다 여아의 성취동기가 높았다. 아버지가 고졸인 경우보다 대졸과 대학원졸인 경우에,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에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성취동기와 관련변인의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와 가족기능, 귀인양식의 하위 변인들 간의 관계를 Pearson의 상관 분석을 하였으며 표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가족기능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한 결과,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가족 응집성($r=.65$), 가족 융통성($r=.62$)은 아동의 성취동기와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의 응집성과 융통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취동기와 귀인양식의 상관관계분석에서는, 귀인양식의 하위영역 가운데 성공 상황에서는 노력($r=.31$)과 능력($r=.30$)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p < .01$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운($r=-.35$)과 과제 난이도($r=-.23$)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성공을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인식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으며, 과제가 쉬워서라거나 운이 좋아서라고 인식할수록 성취동기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가족기능		성공상황				실패상황				성취 동기
	가족 응집성	가족 응통성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능력	노력	과제 난이도	운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1.00										
가족응통성	.80**	1.00									
(성공상황)											
능력	.25**	.24**	1.00								
노력	.27**	.27**	.19**	1.00							
과제난이도	-.21**	-.18**	-.54**	-.48**	1.00						
운	-.27**	-.30**	-.61**	-.66**	.12*	1.00					
(실패상황)											
능력	-.15**	-.17**	.02	-.09	.01	.06	1.00				
노력	.05	.09	.01	.52**	-.08	-.39**	-.19**	1.00			
과제난이도	.13*	.16**	.04	.01	.23**	-.22**	-.48**	-.21**	1.00		
운	-.01	-.06	-.06	-.42**	-.10*	.49**	-.33**	-.63**	-.14**	1.00	
성취동기	.65**	.62**	.30**	.31**	-.23**	-.35**	-.23**	.11*	.16**	-.03	1.00

* $p < .05$ ** $p < .001$

또한 실패상황에서는 과제난이도($r=.16$)와 노력($r=.11$)이 높지는 않으나 정적 상관을 보였고 능력($r=-.23$)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실패가 과제가 어려웠으며 노력을 하지 않아서라고 볼수록 성취동기가 높으며, 능력이 없어서라고 볼수록 성취동기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능력 귀인이다. 성공을 능력으로 귀인하는 아동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였으나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는 아동은 낮은 성취동기를 보였다. 이는 능력이라는 내적 귀인이 성공 상황과 실패 상황

에서 다르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귀인요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보면 성공을 능력으로 귀인하는 성공상황능력 요인과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는 실패상황능력 요인이 거의 상관이 없었다($r=.02$). 노력($r=.52$), 과제난이도($r=.23$), 그리고 운($r=.49$) 귀인은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여 성공을 노력, 과제난이도, 운으로 귀인하는 아동은 실패도 역시 노력, 과제난이도, 운으로 귀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능력 귀인은 그렇지 않았는데, 성공을 능력이라고 귀인하는 아동이 실패도 능력이라고 귀인하지는 않는 것으

로 해석된다.

3.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성취동기에 아동의 거주지역, 성별, 가족기능, 그리고 귀인양식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든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입력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변인들은 아

동의 성취동기를 48% 설명하고 있었다. 아동의 성취동기를 가장 크게 설명하고 있는 변인은 가족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족 응집성이고, 그 다음으로 가족이 당면하는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가족 융통성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이 아동의 성취동기를 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아동의 귀인양식으로는 자신의 성공을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며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아동의 성취동기를 설명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은 음의 베타값을 가지므로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낮은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공 운과 실패 운은 모형에서 제외되었다.

표 4. 성취동기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다중회귀분석

		B	β
상수		39.00	
사회인구학적 변인	지역	-.08	-.01
	성별	1.27	.06
	부교육수준	1.31	.10
	모교육수준	-.55	-.04
가족기능	가족응집성	.67	.39**
	가족융통성	.42	.23**
귀인양식	성공능력	.37	.16**
	성공노력	.33	.15*
	성공과제난이도	.17	.07
	실패능력	-.37	-.14*
	실패노력	-.10	-.04
	실패과제난이도	-.19	-.06
R^2		.50	
수정된 R^2		.48	
F		27.36**	

* $p < .05$, ** $p < .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이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 및 귀인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에서 각각 1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하는 아동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아동의 성취동기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가족기능과 귀인양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성취동기가 관련변인들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취동기는 지역별,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성취동기 수준이 대도시

나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청소년이 도시 청소년에 비해 성취동기가 낮았다는 결과(곽금주 등, 1998)와 같았다. 성별에 따라 성취동기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성취동기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성취동기가 높다는 선행연구들(민숙정, 1990; 김주년, 1994; 김보경, 2001; 김만겸, 2002)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신혜경, 1989)와는 다른 결과인데, 이는 점차적으로 남녀아동의 구별된 양육태도가 사라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양성평등이 확대되면서 여아들의 성취욕구 수준이 높아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아동의 성취동기가 높았는데, 이는 경제수준이 높거나 부모의 교육정도가 고학력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고 보고한 연구(신혜경, 1989)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성취동기가 일반계층 아동의 성취동기보다 낮았다는 연구(김순희, 2004)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이나 소도시의 아동,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해 성취욕구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을 아동이 스스로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지만, 아동이 자신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교사 등 주위 어른들의 관심을 증가시켜서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고, 또는 과도한 성취지향적인 기대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적절한 상황에서 아동이 자신의 과업을 자율적으로 성취해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귀인양식이 아동의 성취동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족 응집성과 가족 융통성이 성취동기와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가족기능이 아동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김주연, 1997; 김연희, 1998; 김보경, 2001; 고경은, 2001)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응집성과 융통성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성취동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귀인양식과의 관계에서는 성공을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고 실패를 노력과 과제난이도로 귀인하는 것이 성취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성공한 것은 능력과 노력이 있어서이며 실패한 것은 노력을 하지 않고 과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볼수록 성취동기가 높았다. 그에 비해 성공상황에서 과제난이도와 운으로 귀인하고 실패상황에서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성취동기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과제가 쉽고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볼수록,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고 볼수록 성취동기가 낮았다.

관련변인들이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는 상대적 영향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의 거주 지역, 성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융통성의 가족 기능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 자신의 귀인양식보다 가족기능이 더 큰 설명력을 가졌음은 가족기능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서영미, 2004), 자아발달(이정렬, 1986), 정신건강(김주연, 1998), 긍정적 사

회성(김정화, 2005)등의 아동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일관된 결과들과 함께 가족기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귀인양식에서는 과제난이도와 운 귀인의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았고 능력과 노력 귀인만 성취동기를 설명하였다. 성공상황에서 능력과 노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높은 성취동기를 설명하고 있어, 성공상황에서 능력과 노력과 같은 내적 귀인을 하는 아동이 성취동기가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이미리, 1983; 신혜경, 1989; 박용섭, 2003; Weiner, 1980)과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실패상황에서는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낮은 성취동기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성취동기가 높은 아동들은 낮은 아동들에 비해 실패상황에서 능력요인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는 신혜경(1989)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실패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아동은 낮은 성취동기를 보이고 실패를 능력으로 귀인하지 않는 아동은 높은 성취동기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귀인을 하는 아동이 성취동기가 높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나 성공상황과 실패상황에 따라 능력으로 귀인하는 것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아동의 성취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귀인양식은 개인의 감정과 태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며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는 만큼, 아동들에게 성공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고, 실패는 노력부족이라고 여기도록 교육시키면,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진다(Dweck, 1975)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의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자기보고식 검사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어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귀인양식 도구의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도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신뢰로운 귀인양식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연구대상을 특정지역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아동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아동의 평가만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가족원의 평가와는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을 가졌으나 본 연구 결과가 아동의 성취동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경은 (2001).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박영신, 김의철 (1998). 한국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스트레스 형성요인: 도시와 농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3(1), 79-101.
- 김만겸 (2002). 영재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건

- 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2001). 이혼가정의 학교-가정 관계, 아동의 성취동기 및 학교생활적응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희 (2004).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주, 구광현 (1998). 신교육 심리 학. 서울: 문음사.
- 김연희 (1998).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년 (1994).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개념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고려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1997). 가족기능에 따른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 (2005). 아동의 성취동기에 대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및 내적성공귀인의 경로 모형. 부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화 (2005). 가족기능과 정서지능 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숙정 (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섭 (2003). 중학생의 성취동기와 귀인성향 및 진로성숙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영미 (2004). 아동이 지각한 가족 기능성, 또래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 (2001).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신혜경 (1989). 양육태도, 성취동기 및 귀인성향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귀덕 (1986). 귀인성향, 지각학급풍 토 및 두변인의 상호작용이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리 (1983). 귀인과 성취동기 수 준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인 (1991). 가정환경, 성역할정체 감, 성취동기와 직업포부수준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렬 (1986). 가정환경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1). 아동발달. 서울: 박영사.
- 전경숙 (1986). 아동의 학업성취동기 요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69-76.
- 정 인 (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실 (2005). 초등학생의 가족형태 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상분 (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 기능유형. 아동학회지, 13(2), 145-160.
- Atkinson, J. W. (1964).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ew York; Van Nostrand Co.
- Belsky, J., Garduque, L., & Hmcir, E. (1984). Assessing performance, competence, and executive capacity in infant play: Relations to home environment and security of attachmnet. *Developmental Psychology*, 20, 406-417.
- Crandall, V. E., Katkovsky, W., & Crandall, V. J. (1965). Children's beliefs in their own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academic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6, 91-109.
- Dweck, C. S. (1975). The role of expectations and attributions in the allevi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306-317(?).
- Murray, H. A.(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Stipek, D. J., Recchia, S., & McClintic, S. (1992). Self-evaluation in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7, 1, Serial No. 226.
- Weiner, B. (1980). A theory of motivation for some classroom experienc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 3-25.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a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1 차원고접수 : 2008. 10. 11.
수정원고접수 : 2008. 11. 28.
최종게재결정 : 2008. 12. 05.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Family Function and Attribution Style

Lee, Jong-Min

Choi, Young-Hee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The University of Su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and family function and attribution style. Additionally,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chievement motivation due to area of residence, the data were collected in the capital (Seoul), in a small city (Uijeongbu) and in a small town (Seosan). The subjects were 420 fif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Family function consisted of family cohesion and flexibility, and attribution style consisted of ability, effort, task difficulty, and luck in situations of both success and failure.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 who lived in a large city, and had parents with higher educational levels showed higher achievement motivation levels than those who lived in a small town and whose parents had lower educational levels. Moreover, girls had high achievement motivation than boy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hievement motivation and family function as perceived by the children, such as family cohesion and family flexibility. However these differences disappeared when family functions and attribution style were added to the equation as an explanation of achievement motivation. Family cohesion, family flexibility, ability and effort attribution in situations of success and ability attribution in situations of failure were th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ldren. While ability attribution in situations of success explained higher levels of achievement motivation, ability attribution in situations of failure helped explained lower achievement motivation. This means that ability attribution had a different directional influence according to whether the situation was one of failure or.

Key words : family function, attribution style, achievement motivation